

# 문화재 활용 교육·관광·경제를 '생생하게'

순창군, 남산대 마을 귀래정  
설씨부인·신경준 선생 유지  
복흥면 구암사 이용  
4월 14일부터 7개월간  
4가지 주제로 사업 시작



생생문화재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글 사랑 글짓기 대회'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글짓기를 통해 훈민정음과 한글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순창군이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 지역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군은 순창읍 남산대 마을 귀래정과 설씨부인·신경준선생 유지, 복흥면 구암사를 활용한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단순히 문화재를 바라보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확정돼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과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문화원이 주관한다. 4월 14일부터 7개월간 4가지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제별로 2~4회 이론 강좌와 답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먼저 '훈민정음 창제를 통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강좌'는 훈민정음 창제 후 문자의 실용성을 시험하고자 세종대왕과 수양대군에 의해 편찬된 『월인석보 제15』가 발견된 전봉사할 구암사의 오랜 역사와 관련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여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바로알

기 강좌와 문화재 답사는 실학, 지리학 뿐만 아니라 어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신경준 선생의 다양한 업적과 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월인석보를 품은 구암사 답사 기행'은 보물 745-10호인 『월인석보 제15』가 발견된 전봉사할 구암사의 오랜 역사와 관련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한글 사랑 글짓기 대회'는 한글날

을 맞이하여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글짓기를 통해 훈민정음과 한글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문화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적극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물리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재미와 흥미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각이 넘치는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순창군 문화관광과 전화 660-1623 또는 순창문화원 전화 663-2069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주인규 기자

## 중국전시 한국 만화 공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중국 산둥성 엔타이시에 건립 예정인 한중만화영상체합관을 통해 홍보 전시될 한국만화콘텐츠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2일에는 전시 콘텐츠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천시와 엔타이시는 지난해 체결한 협약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엔타이시 문화창의산업단지 양 기관을 한중문화교류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한중문화콘텐츠산업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교류사업의 하나로 한중만화영상체합관이 엔타이시 문화창의산업단지에 약 800㎡ 규모로 오는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진흥원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만화가 및 기업의 작품을 모집해 한중만화영상체합관을 통해 전시 및 홍보한다. 한국만화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중비즈니스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2일 오후 4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한중만화체합관 전시 홍보 콘텐츠 모집 설명회를 연다. 모집하는 작품은 웹툰과 출판만화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게임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OSMU 콘텐츠다. 모집된 콘텐츠는 3년간 한중만화영상체합관에 전시돼 홍보된다. 엔타이시 문화창의산업단지 창세 국장은 "엔타이 문화창의산업단지는 한국 웹툰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중국과 이어질 수 있는 기교가 될 것"이라며 "한중만화영상체합관을 매개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www.komacokr /정해은 기자

## 전주 시립교향악단

### 내달 7일 정기 연주

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최희준의 지휘로 오는 4월 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과 소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나단조, 작품 47가 연주돼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 첼로연주자 송영훈이 협연에 나서 이목을 끈다. 그는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로 2002년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임명 받아 세계 60여 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한국을 대표하며 활약했다. 또한, 연주뿐만 아니라 현재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도 맡아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해은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안중근의사 특별기획전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생애, 하얼빈의거와 더불어 안중근의사와 뜻을 같이한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군산시, 독립운동가 삶 재조명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  
6월 3일까지 유물 100여점 전시

군산시가 안중근의사의 생애, 하얼빈의거와 더불어 안중근의사와 뜻을 같이한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안중근의사승모회(이사장 안응모)와 함께 22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박물관과 안중근의사승모회의 MOU체결을 기념해 안중근의사승모회가 소장한 사진과 유물 100여점을 군산 시민에게 소개하고 잊혀져가는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시 주제는 ▲안중근 의사의 고향과 유년기를 소개한 '청계동 아이 ▲독립 활동을 내용으로 한 '대한독립을 꿈꾸다' ▲사상과 역사관을 보여주는 유물을 전시한 '강압의 중심에서 대한을 외치다' ▲안중근의사 의거 후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가족 그리고 가족 ▲안중근의사와 함께 하얼빈의거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대한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로 구성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가의 고뇌와 애족애민 정신을 느끼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한국현대춤협회 창립 30주년

### 현대춤작가 12인전 31일까지

한국현대춤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제30회 2016 한국 현대춤작가 12인전'이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987년부터 무용계의 실험적 작가 정신의 고양과 무용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돼 왔다. '현대 춤 작가 12인전'은 그동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 여러 부문에서 탄탄한 기량과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자기세계를 구축한 중견 무용가들의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전년도 10월께 심사위원회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출연자의 80%를 확정했다. 연말 이전까지 출연자의 라인업을 결정한다. 한국현대춤협회는 출연자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공연 세부일정과 작품 논의를 한다. 창작 초연 작품을 4~6개월 가량 준비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 /정해은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23일>

<p><b>▷쥐띠</b> 46년생: 건강에 주의요하는 운이다. 심성에 주의하라.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72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자신의 생각만 믿고 움직이다가 큰 코 다치는 운이다.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라.</p>	<p><b>▷소띠</b> 49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61년생: 오르지 못갈 나무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자신보다 능력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진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협동해야 가능하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망심은 금물, 승은 복령으로 인해 선결을 잃어 생긴다.</p>	<p><b>▷토끼띠</b> 51년생: 패한 것은 모자랐지만 못한 법.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고민갈 일이 생긴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럴때 쓰는 말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운이니 투기는 금물이다. 87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답을 쉽게 찾는다.</p>
<p><b>▷용띠</b> 52년생: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인연을 소중히 대하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지푸락질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알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p>	<p><b>▷범띠</b>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확실히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p>	<p><b>▷말띠</b> 54년생: 뜻을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유래오는 회기부 가라앉혀라. 심폐만 익혀둬라.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할 자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b>▷양띠</b> 55년생: 운을 주고받는 일에도 웃은 운. 67년생: 평안에서 권태로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분 일이 생기니 한편으로는 성가신 일들도 발생한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b>▷원숭이띠</b>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게름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심성에 주의하라.</p>	<p><b>▷닭띠</b> 57년생: 구설도 함께 따르니 주의하라.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안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p>	<p><b>▷개띠</b> 48년생: 티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60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p>	<p><b>▷돼지띠</b> 47년생: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p>